



## 제1회 한·일 전기기술교류회의 참가기

설재웅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3학년

필자는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일 전기기술교류회의(Korea-Japan Electric Technology Exchange Conference)에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 전기공학도의 한 사람으로써 양국 전력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전기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일본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선진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이번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본 교류회의는 한·일 양국의 전력산업 현황 및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양국 전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전기협회와 일본전기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회의로서, 올 6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전기기술교류회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일본 측에서 “한·일 전기안전의 현상과 과제”란 주제로 첫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 매년 한·일간에 번갈아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7년 4월에는 한국의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강원도 평창에서 제2회 한·일 전기기술교류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부회장님을 포함한 20여명의

한국 측 일행은 회의 전날인 25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동경 하네다공항에 도착하였다. 시라카와 부장 등 일본전기협회 측 인사들이 마중을 나왔으며, 함께 중식을 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이후 일본전기협회를 방문하여 다음 날 열리는 회의장을 확인하고, 제2회 한·일전기기술교류회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하였다.

26일 오전 10시 일본전기협회 회의실에서 개회를 시작으로 제1회 한·일 전기기술교류회의가 시작되었다. 한국 측 20여명, 일본 측 일본전기협회 포함 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의 발표가 통역관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1. 「대한민국 전기관련 법령체계 및 전기안전규제 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법제팀 부장 이범욱
2. 「일본의 화력발전소 안전관리심사제도 실시상황에 대하여」, 일본전기협회 기술부 주사 Satou Masataka
3.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의 개편현황 및 민간표준의 활용」,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처장 김한수
4.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 안전관리체계」,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실 가공배전팀 과장 황영익

각각 발표5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양국 간의 활발한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졌다. 총괄질의 시간에는 한국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반적인 전력산업에 대하여 일본 측 인사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 내용은 한국의 220V 송압 구조조정 과정 및 그에 따른 안전사고, 송전선로에서의 동선과 알루미늄선, 배전자동화의 효과 등이었다.

교류회의가 종료되고, 일본전기협회의 주최로 동경 회관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한·일 양국의 인사말과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향후 양국 전기산업계의 우의를 다짐하였다.

다음날인 27일에는 공업도시인 가와사키에 위치한 전기사료관을 견학하였다. 전기사료관은 동경전력연구소 옆에 위치해 있으며, 5년 전에 동경전력 창립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써 건립되었다. 전문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0여년 역사의 일본전기사업을 소개하고 전력산업의 공헌을 홍보하여 미래 전기기술의 초석이 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관내에서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전기과학관」, 에디슨의 발명품을 전시를 통해 에디슨을 기리는 「에디슨 수집관」, 배전기술 및 전기이용기술을 소개하는 「전기와 사회관」, 이 밖에 「수력발전관」, 「원자력발전관」등을 견학하였다.

관내견학 후 전기사료관 및 일본전기협회 인사들에게 일본 전력산업과 사료관에 관해 질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본의 전력산업 자유화,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로써 일본전기협회와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류회의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220V송압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부러움과 동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측에서는 일본 전기안전관리의 심사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안전제도의 과제를 진단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 밖에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일본이 기존의 500kV를 넘어서 1000kV 송전선로가 완공되어 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9개 전력회사로 전력산업의 자유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독일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점들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향후 발전하는 데에 크게 참고가 될 사항들이다.

이번 전기안전을 주제로 한 제1회 한·일 전기기술 교류회의를 통해서 학생인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한 한국 측의 전문가 분들에게도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며, 다른 주제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2회 교류회의에서는 더욱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